

여성자치연대(준) 제 1차 총회 안건지

일시: 99년 1월 6일 수요일

장소: 이과대 130호

논의에 앞서...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끝난 이후 자치단체 연석회의는 논의를 통해 회의체에서 연대체로 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성자치연대의 필요성과 연대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및 개인간의 이견들이 쟁점을 갖고 논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성자치연대 이름으로 지속적인 회의 테이블이 굴러갔고 공동으로 기초 세미나인 '여성학학교'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또한 공간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요구를 해야하는 상황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자치연대의 불확실한 상은 이러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끊임없이 요구되는 활동 속에서 여성자치연대가 연대를 위한 발판이 아니라 연대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는 여성자치연대(준) 총회는, 사실상 총회라기 보다는 현재 연대 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의 보다 '현실적인' 연대를 위하여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새로운 연대체로의 전화가 99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에 대한 고민과 99년 연세대 안의 여성주의 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오늘로 완결될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우리의 운동이 이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99년 여성주의 운동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맹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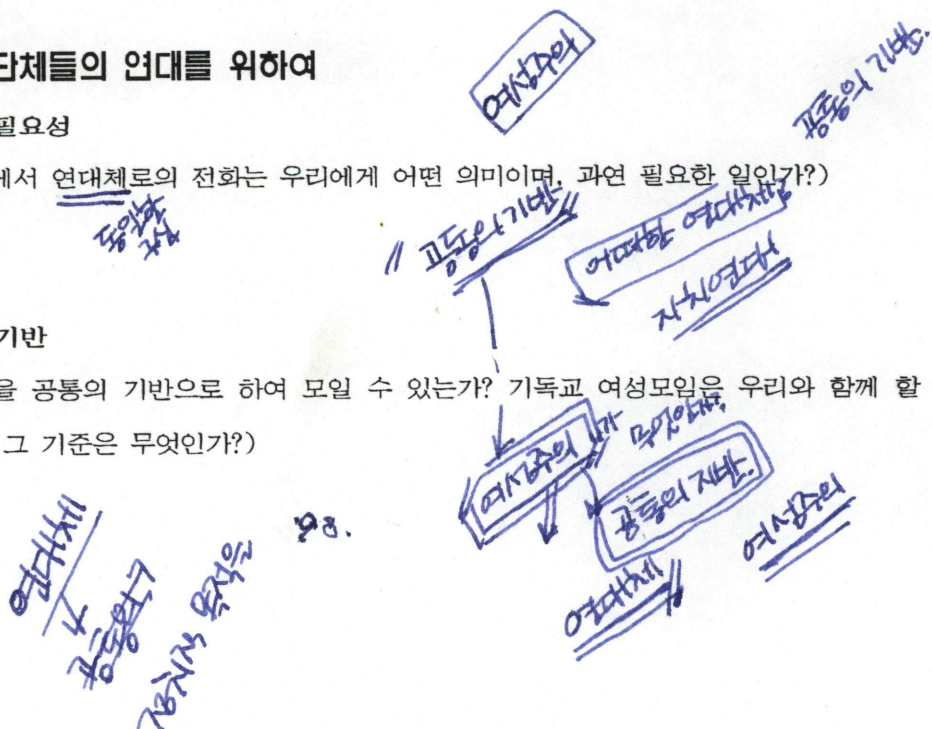
I.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를 위하여

1. 연대체의 필요성

(현재 회의체에서 연대체로의 전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과연 필요한 일인가?)

2. 연대체의 기반

(우리는 무엇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모일 수 있는가? 기독교 여성모임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II. 여성자치연대를 위하여

1. 여성자치연대를 실체를 갖고 활동하기 위한 체계는?

- '운영진의 구성'이 제안된 상태이죠.

2. 자치연대와 자치단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자치연대가 상위조직되거나 자치단체들과의 활동이 괴리되지 않기 위한 장치는?(or 체계는?)

3. 다른 학교들과의 연대활동(여노대련, 성폭력 연대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III. 여성주의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1. 예산자치제

2. 공간이용에 대한 논의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여성주의자들을 위하여!